# Root Impact

# 2015 Annual Report

루트
임팩트

2015년
연례보고서

ROOT IMPACT

INSPIRE

LEARN

LIVE

WORK

# Context

목차


## GREETINGS

03 이사장 인사말

## INTRO

04 루트임팩트 소개

## COMMENT

06 SNS를 통해 본 루트임팩트

## INSPIRE

10 Innovators' Library 혁신가를 위한 공유 도서관
16 D-well Salon 잠재적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공간
22 Interview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김윤지

## LEARN

28 Impact Basecamp 체인지메이커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32 Interview JUMP 김재원
34 Impact Challengers 체인지메이커 인턴 프로그램

## LIVE

42 D-well House 체인지메이커들의 셰어하우스
46 Interview Dotween 박재성, 박재형, 김은정

## WORK

52 Shared service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공유 서비스
56 Ground 체인지메이커 코워킹 커뮤니티

## MAKERS

60 CEO 정경선 인사말
62 Board of Directors 이사진 약력
63 Changemakers 사무국

64 **FINANCE**


# Greetings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루트임팩트가 지난해 거둔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큰 변화 또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사업에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보잘 것 없는 시도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상을 꿈꾸며, 체인지메이커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려는 저희들에게 지난 해는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디웰 하우스와 같은 해 11월에 문을 연 디웰 살롱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통해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루트임팩트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성과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벤처와 그 회사들에 인턴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현대차정몽구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연결하는 임팩트 챌린저스 프로그램도, 6개월간의 다양한 지원 제공으로 청년들의 실무경험 축적과 업무역량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J.P.모간과 함께 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시작하여 첫 출발하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와 그라운드 등 다른 사업들도 꾸준하게 알찬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듯 적지 않은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루트임팩트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이 길을 가려합니다. 저희들의 행로에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루트임팩트 이사장 예종석 올림.**

# Intro

루트임팩트 소개

## *Changemakers For Changemakers*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루트임팩트는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른다.**

**2012년 7월, 루트임팩트는 모든 사람이 각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되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가치를 알려 체인지메이커 수를 늘리는 한편 이미 활동하고 있는 체인지메이커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더 오래,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루트임팩트는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방법론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체인지메이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체인지메이커와 우리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 명의 동료로 함께 일하며 꾸준히 성장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MISSION**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VISION**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 사업 방향성

루트임팩트는 우리 사회에 체인지메이커가 많아지고 이들의 다양한 사회 혁신 시도들로 인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꿈꾼다. 체인지메이커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INSPIRE**
체인지메이킹 문화와 경험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및 멤버십 커뮤니티
- Innovators' Library
- D-well Salon

**LEARN**
체인지메이커의 성장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Impact Basecamp
- Impact Challengers

**LIVE**
체인지메이커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거 기반 커뮤니티
- D-well House

**WORK**
체인지메이커의 성장과 향상을 돕는 공간, 프로그램 및 코워킹 커뮤니티
- Ground
- Shared Service

### Hash Tags

본 보고서에서는 사업별 키워드를 해시 태그로 볼수 있다. 각 사업에서 목표하고 있는 체인지메이커의 단계를 '마라톤'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사회 문제에 막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신발 신기'단계부터 주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인 '마라톤' 단계까지 찾아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체인지메이커 **신발 신기** | 체인지메이커 **신발끈 묶기** | 체인지메이커 **일어나기** | 체인지메이커 **걷기** | 체인지메이커 **같이 뛰기** | 체인지메이커 **마라톤** |
| - Innovators' Library | - D-well Salon | - Impact Basecamp | - Impact Challengers | - D-well House | - Ground |

# Comments

SNS를 통해 본 루트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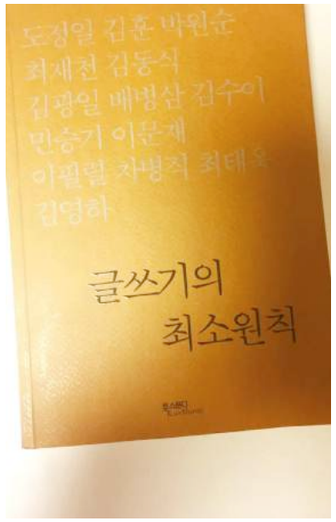
**din******** #성수동 에는 새로운 곳이 많다. 고민하는게 시작. 기억해야지 #디웰살롱 #아프리카인사이트

**gdg********** 2호점 식구들이 첨 이사하던 날 1호점×2호점×루트임팩트 같이 저렇게 모였드랬죠.. 벌써 거의 3달이 지나다니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 #루트임팩트 #디웰하우스 #디웰

**bok********* 벌써 #designthinking 다섯 번째 시간. 지난 3주간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나의 창의성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impactbasecamp #IBC #rootimpact #디자인씽킹 #sap코리아

**bro**** 좋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수 많은 고민의 흔적이 슬라이드에 보이고 들린다. 그럼에도 뜨겁다. #임팩트베이스캠프 #SAP

**pek** 월요일부터 진행될 사진 전을 위한 준비. 다함께 모여 D.I.Y #성수동 #서울숲길 #서울숲 #photo #exhibition #디웰살롱




**김** 디웰살이에서 가장 감사하고 좋은 점은 서로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달라서 배우고, 옆에 있어서 배우고, 오다가다 배우고. 배움을 좋아하는 나에게 참 좋은 생태계이다. 디웰에는 15명의 스승들이 있다.

**bri*********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중

**mj***** 성수동 소셜벤처 거리에 있는 Innovators Library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가를 위한' 이란 테마로 운영 중이에요. 혁신의 씨앗이 될 여러 책들이 비치돼 있더라구요. 무인 도서관이라 눈치 안보고 마음껏 뒹굴거리며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곧 출간되는 저희 책도 기부해야겠어요!! #innolib #도서관 #혁신가를위한도서관 #성수동 #소셜벤처 #소셜벤처거리

**허** 루트임팩트 3주년! 우리 사람들 얼굴이 해사하고 맑고 밝고 자신있다.

**김** 핵심은 '타인이 세운 목표'가 아닌 '내가 만든 목적'에 의한 일을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는데 있지 싶습니다. 기어코 시작할 수 있도록 (긍정적) 부담을 준 디웰 고맙습니다.

**reb******* 성수는 언제나 옳다. 디웰은 물론 옳다! #성수 #디웰 #체인지메이커 #소셜벤처 #디웰살롱 #서울숲

**you********** 나에게 '디웰'은 마치 운동 같다. 가기까지 힘들지 막상 가면 너무 좋은 것을. 오늘 늦게나마 참여한 [세상을 보듬는 따뜻한 대화] 두번째 시간 #성수동 #디웰살롱 #세보따대 #여유수집가 #changemaker

**jim***** #디웰데이 #아침밥 #beautiful_morning

# INSPIRE

p.10
Innovators'
Library

p.16
D-well
Salon

# Innovators' Library

혁신가를 위한 공유 도서관

#체인지메이커 신발 신기
#혁신가101 #공유도서관

## 사업 소개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이하 이노립)는 사회 혁신에 대한 영감과 자극을 제공하는 공유도서관이다. 세상을 더욱 긍정적인 곳으로 만드는 사회 혁신에 대해 책을 매개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책은 역사적 발전 과정 중 혁신에 대한 힌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매체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아직 방법을 몰라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의 혁신을 학습하고 싶은 이들에게, 혁신을 주제로 한 책이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이노립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고, 이 공간에서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 열람은 방문객 누구나 가능하며, 멤버십 가입 후 등급에 따라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멤버십은 무료로 운영되며, 인류 기록의 역사를 바탕으로 네이밍된 등급에 따라 도서관 이용 혜택이 달라진다.

이노립은 책 속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자신의 혁신을 풀어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체인지메이커가 바꾸어 가는 세상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다양한 체인지메이커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현재 '책 밑(meet) 사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Result

**보유 권수**

1,20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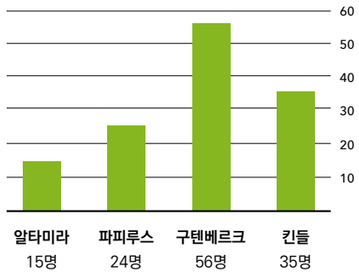
**주당 평균 열람객**

25명

**주당 평균 대출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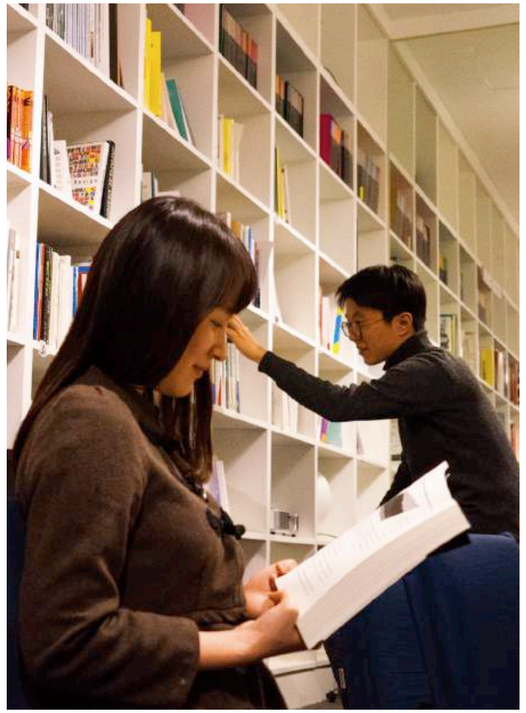
12권

**등급별 멤버수**




**멤버십 소개**

| 등급명 | 알타미라 | 파피루스 | 구텐베르크 | 킨들 |
|---|---|---|---|---|
| 이노립 스티커 | 0개 (가입 즉시 획득) | 10~19개 | 20~39개 | 40개 이상 |
| 대여 한도 | 도서 열람만 가능 | 최대 1주간 / 3권 | 최대 2주간 / 5권 | 최대 4주간 / 7권 |



## 도서 큐레이션 원칙

혁신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노립이 '공유 도서관'으로서 가지는 가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노립은 '혁신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을 담은 도서들'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삼아, 도서 선정 기준을 정립하여 매거진, 단행본 등을 비치하는데 적용한다.

이노립은 개인의 혁신 의지를 깨우는 데 영감과 자극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비치한다. 이에 대해 옛 고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전적 도서분류법인 듀이 10진법을 떠나 모든 장르를 혁신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노립은 도서를 공유하는 혁신가들의 큐레이션을 최대한 신뢰하고 있다.

**1 INSPIRATION**
'혁신 의지'와 '행동'에 영감과 자극을 주는 도서를 선정한다

**2 CLASSIC**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불멸의 가치를 담은 고전'을 존중한다.

**3 ANTI-DEWEY**
'듀이(Dewey) 10진법' 도서분류코드 대신, 모든 장르는 '혁신'으로 묶인다

**4 FAITH**
이노립에 도서를 공유하는 혁신가들의 큐레이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 책 밑 사람

meet

(舊 PICK! 서가)

'책 밑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을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서가이다. 서가의 주인으로 선정되면, 그의 삶에 영감을 주었던 책이나 그가 생각하는 혁신을 잘 담아낸 책 등을 할당된 서가에 프로필과 비치한다. 이를 통해 혁신가 간의 지식공유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혁신가와 일반 방문객이 혁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퍼펙트피치
INKYUM
VENICE BIENNALE 2013

# D-well Salon

잠재적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공간

**#체인지메이커 신발끈 묶기**
**#Ready for action #Talk a lot**

## 사업 소개

디웰 살롱은 잠재적 체인지메이커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막연하게나마 세상을 변화 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나, 그들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관심 이상의 용기와 학습이 필요하다. 디웰 살롱은 이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웰 살롱은 "Make your first step @D-well"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디웰 프렌즈' 멤버십 회원으로 모집한다.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 사회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고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가, 학자, 예술가 등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1% 살롱〉과 사회 문제를 재조명하는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살롱 무비톡〉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루트임팩트는 잠재적 체인지메이커들이 각자의 고립된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멤버십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웰 살롱의 경험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사회,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디웰 하우스 1호점의 1층~지하 1층에 디웰 살롱 오픈

**2015년 2월**
디웰 살롱 멤버십 '디웰 프렌즈' 런칭

## Result

**멤버십**

2015 유료 멤버십 회원 수
**107명**

월 평균 활동 인원
**49명**

**프로그램**

2015 프로그램 참석자 수
**67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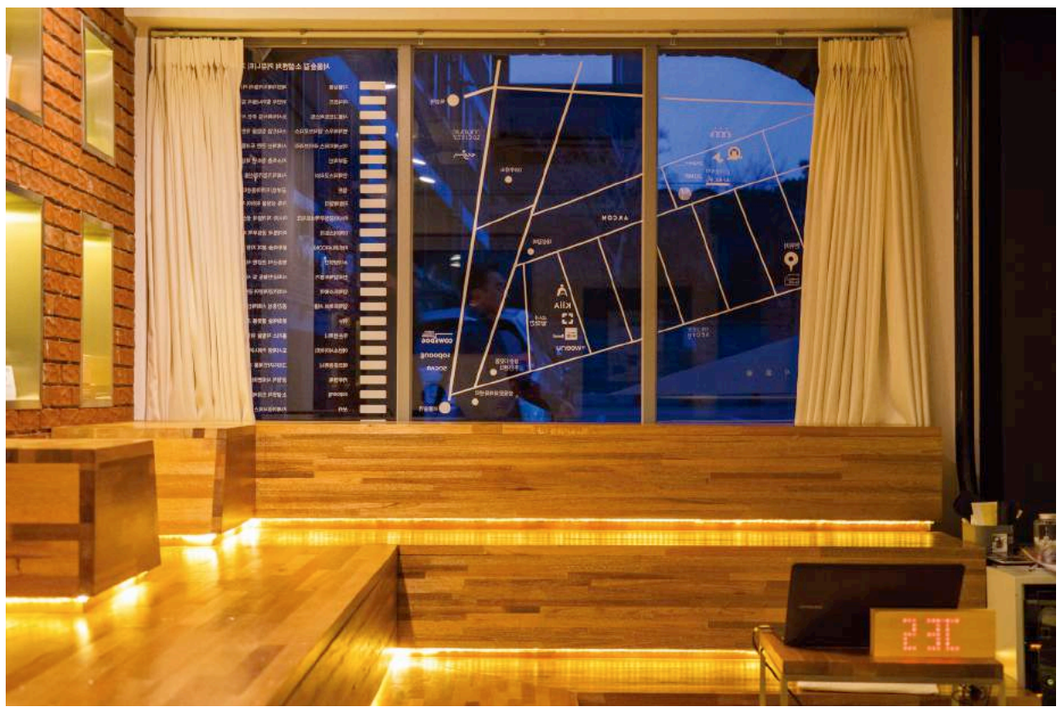
평균 재방문자
**40%**

**프로젝트**

디웰 프렌즈 소셜 프로젝트 지원 시작
**2015. 9.**

지원 프로젝트
**9개**

소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디웰 프렌즈 멤버 비율
**30%**





## 핵심 가치

### 이야기의 장

디웰 살롱은 환경, 인권 등 사회 이슈들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준다. 문제 제기부터 해결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감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소셜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출발선

디웰 살롱의 핵심은 '시작'을 돕는다는 데에 있다.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고, 논의를 넘어서 실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다른 멤버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 주기도 하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역량 안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람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디웰 살롱이다. 디웰 프렌즈 멤버십은 단순 만남을 넘어 언제든 생각을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또한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멤버들끼리 서로 영감을 주고 받기를 기대한다.

DO
WELL

## 인터뷰

**김윤지**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대표

김윤지 대표는 베이비박스 이면의 사회 문제들을 다각도로 정의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김대표는 디웰 살롱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있는 조언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들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디웰 프렌즈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필드 리서치를 하기 위해 작년에 3개월 정도 미국에 다녀왔어요. 실리콘 밸리의 한 커뮤니티 하우스에 묵게 되었는데, 방에 이층 침대만 몇 개 놓여져 있는, 시설만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곳이었는데도, 매일 저녁마다 전세계에서 모인 사람들과 각자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얘기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서치를 하다가 디웰 살롱에서 진행 중인 1% 살롱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나 뵙고 싶었던 명성진 목사님과 이수인 대표님의 토크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디웰 프렌즈에 가입했죠.

**디웰 살롱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베이비박스가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디웰 프렌즈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본인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더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토토디[1] 자리에서, 당시 디웰살롱 매니저셨던 허지용 님이 다른 디웰 프렌즈분들께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를 소개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이어 다음 달 토토디에서 정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생겼고, 다른 프렌즈들에게도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많은 피드백과 조언을 얻었습니다. 가오픈 상태의 웹사이트만 보시고도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주신 프렌즈 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죠.
박연경 매니저님은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를 소개할 다양한 기회를 연결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연달아 사이드디쉬[2]에서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구요. 박연경 매니저님은 프렌즈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믿고, 적절한 기회를 연결함으로써 탁월하게 밀고 끌어주셨어요.
디자이너인 제 파트너와 둘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디웰 덕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특히 사이드디쉬를

---

**토토디[1]** '토요일 토요일은 디웰'의 준말로, 매달 첫 째주 토요일에 신입 멤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디웰 프렌즈 만의 네트워킹 파티

**사이드디쉬[2]** 본업이 아닌 사이드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1회 당 3팀의 발표로 구성된다.

디웰 커뮤니티는 문제에 공감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통해 만난 에너지 넘치고 소셜 이슈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가 코어팀에 합류하게 되어,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1월에 디웰 프렌즈와 루트임팩트 멤버들을 모시고 소규모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 재능과 서비스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 제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 지 더 생생하게 보고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라는 라이프 미션이 생겼습니다.
2013년경 뉴스 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3]에 대해 알게 됐고, 첫 몇 년은 베이비박스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로 시작했는데, 해 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 나오는 기사가 항상 같았어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한다는 교회의 입장.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지 6년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같은 논쟁만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문제 중에 베이비박스 문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첫째, 아기들은 백지로 세상에 태어나 앞으로 채워나갈 공백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 아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파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베이비박스는 입양, 미혼모, 장애,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

**베이비박스[3]** 베이비박스는 담장을 뚫어 만든 것으로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박스가 붙어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기르기 어려운 아기들이 주로 베이비박스에 들어온다. 우리 나라에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정말 가치있는 일입니다. 보스톤 글로브 2015년 5월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은 우리 사회가 시대별로 배척하는 사회 이슈를 상징한다고 해요. 6.25 직후에는 혼혈아들, 이후엔 가난한 아이들, 지금은 장애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는 부모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를 선택하는데, 이것만 분석해도 우리 사회가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문제들의 단면을 한 눈에 볼 수 있죠.
셋째, 지금까지 나와있는 해결책은 주로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후의 상황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그 시도들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리서치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논의에서 예를 들자면,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영아유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 데이터와 리서치에 기반하지 않은 상태로 선입견과 추측으로 임의의 목적을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자 해요. 답을 미리 정해놓으면 현실에 존재하는 '진짜'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소셜 프로젝트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디웰프렌즈 커뮤니티를 많이 추천하신다고 들었어요.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다고요.**

베이비박스에 대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회적 토론의 중심은 존치 문제에만 포커스되어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순간적으로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존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내고, 그에 따라 감정적인 댓글과 토론만이 오고가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다른 문제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디웰 커뮤니티는 문제에 공감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디웰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에 진짜 필요한 커뮤니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살롱에서 특별히 많은 영감을 얻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미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임팩트를 만들어낸 체인지메이커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 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나 조언을 생생하게 듣고, 베이비박스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영감을 받아요.
도티기념병원의 최영아 과장님께서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신 경험에 대해 듣고 베이비박스 프로젝트의 경우 미혼모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 선생님께는 체인지메이커로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노하우를, 정혜신 박사님께는 진정으로 존중받는 개인이 얼마나 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루트임팩트와 함께 하며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루트임팩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모두들 일관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루트임팩트 매니저님들은 제가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항상 궁리하시는 듯, 다방면으로 제안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저다운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점이 놀라웠어요. 조직이 주창하는 미션을 말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 사회에 존재해줘서 참 고마운 조직입니다.

# LEARN

p.28
Impact
Basecamp

p.34
Impact
Challengers

# Impact Basecamp

체인지메이커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체인지메이커 일어나기
#빡센 #체인지메이커 사관학교

## 사업 소개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소셜섹터의 임팩트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야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확보가 핵심적이다. 루트임팩트에서는 J.P.모간의 후원을 받아 역량 있는 미래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운영한다. 교육의 주요 대상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청년(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대학원 재학생, 기졸업자 등)들이다.

임팩트 베이스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특정 소셜벤처가 당면한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교육과 프로젝트 수행 실습을 거친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1:1 커리어 상담과 멘토링 강연을 통해 소셜섹터에서 커리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교육 종료 후에는 동료 학생과 멘토, 소셜벤처 관계자 등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이어간다. 임팩트 베이스캠프의 다차원적인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53명의 학생 중 23명이 현재 소셜벤처에서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 소셜 섹터 안의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여러 주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커리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발견, 팀에 대한 동질감,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 등 심리적 성과를 얻는다. 교육의 멘토로서 기여하는 참여자들 역시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미션을 제시하는 소셜벤처들도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통해 검증된 인재를 추천 받음으로써 인력 채용에 도움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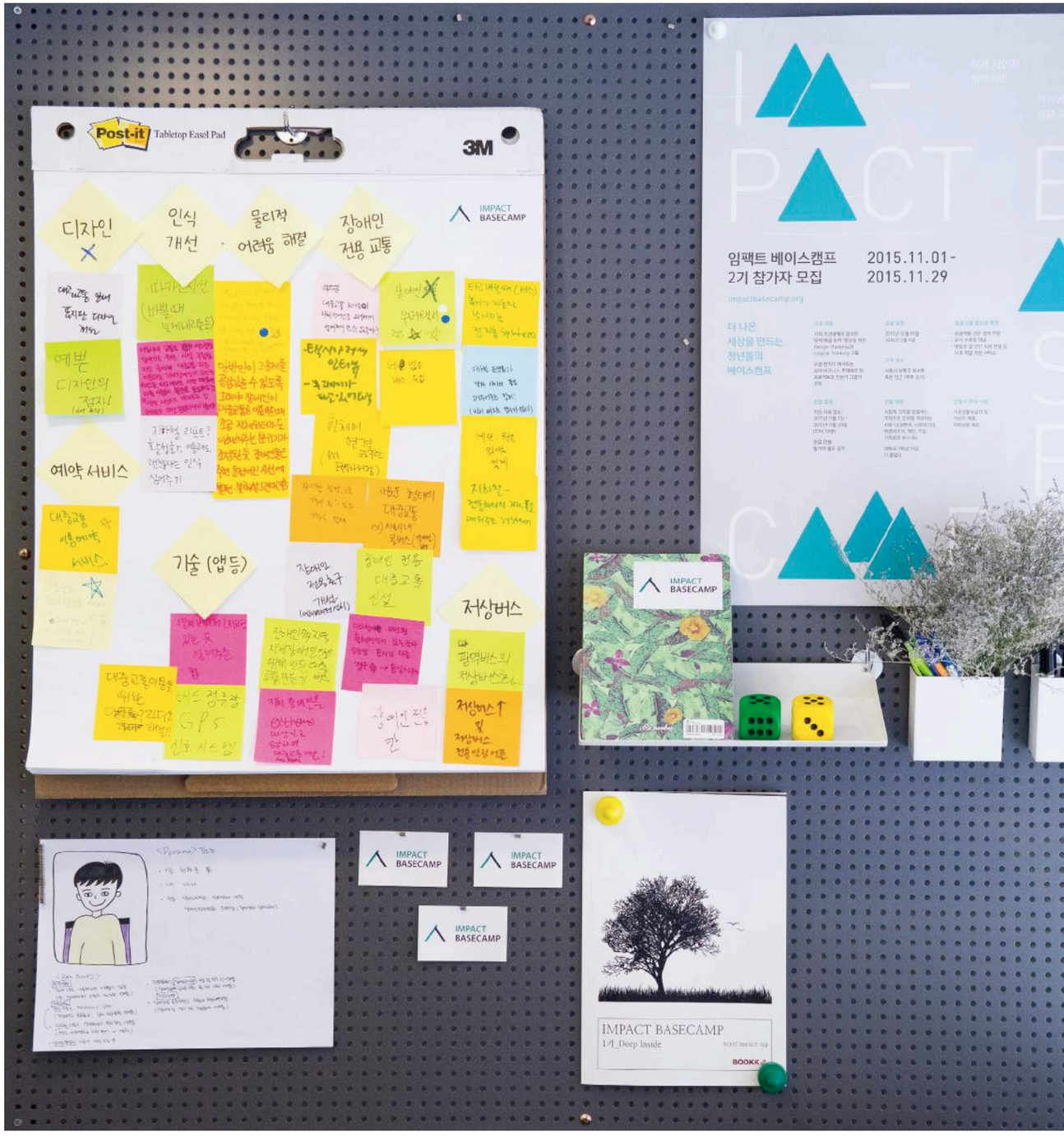
임팩트 베이스캠프는 2016년 말까지 4회 기수 추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넓혀갈 예정이다. 잠재력 있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경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지지 기반이 되고, 분야 내 기업들에게는 준비된 신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추천자로 그 입지를 넓혀감으로써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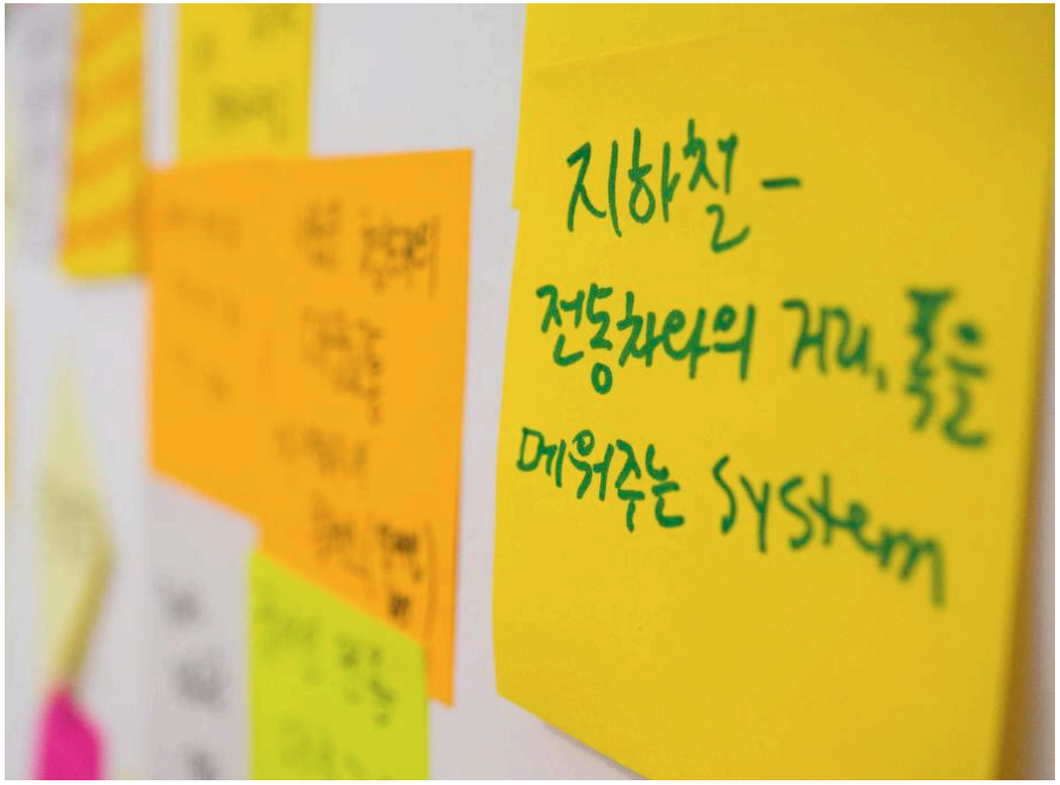
**2015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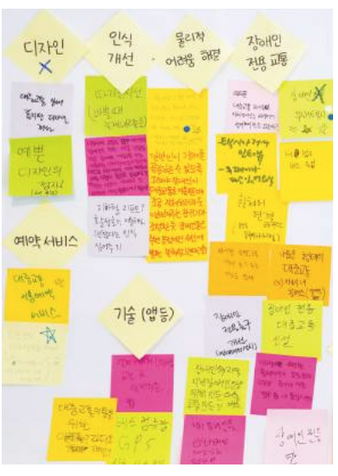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 | 0기 (파일럿) | | | | 1기 | | | | 2기 | | | | |
| 수료 | | 17명 | | | | 36명 | | | | 30명 | | | | |
| 소셜섹터 커리어 시작 | | 11명 | | | | 12명 | | | | (집계중)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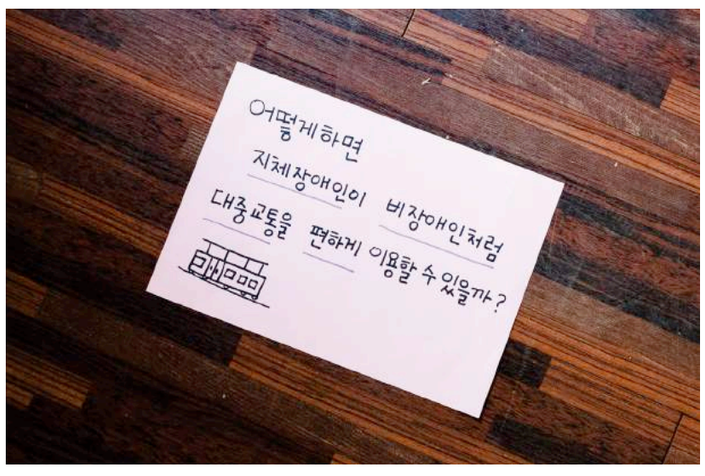













## 핵심 가치

### 실제 경험

타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임팩트 베이스캠프만의 가치는 "실제 경험"에 있다. 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실제 소셜벤처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사업 영역 개발, 전략 구축부터 사업의 방향성까지 실제로 벤처가 현재 맞닥뜨린 문제가 미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마주하는 상황들이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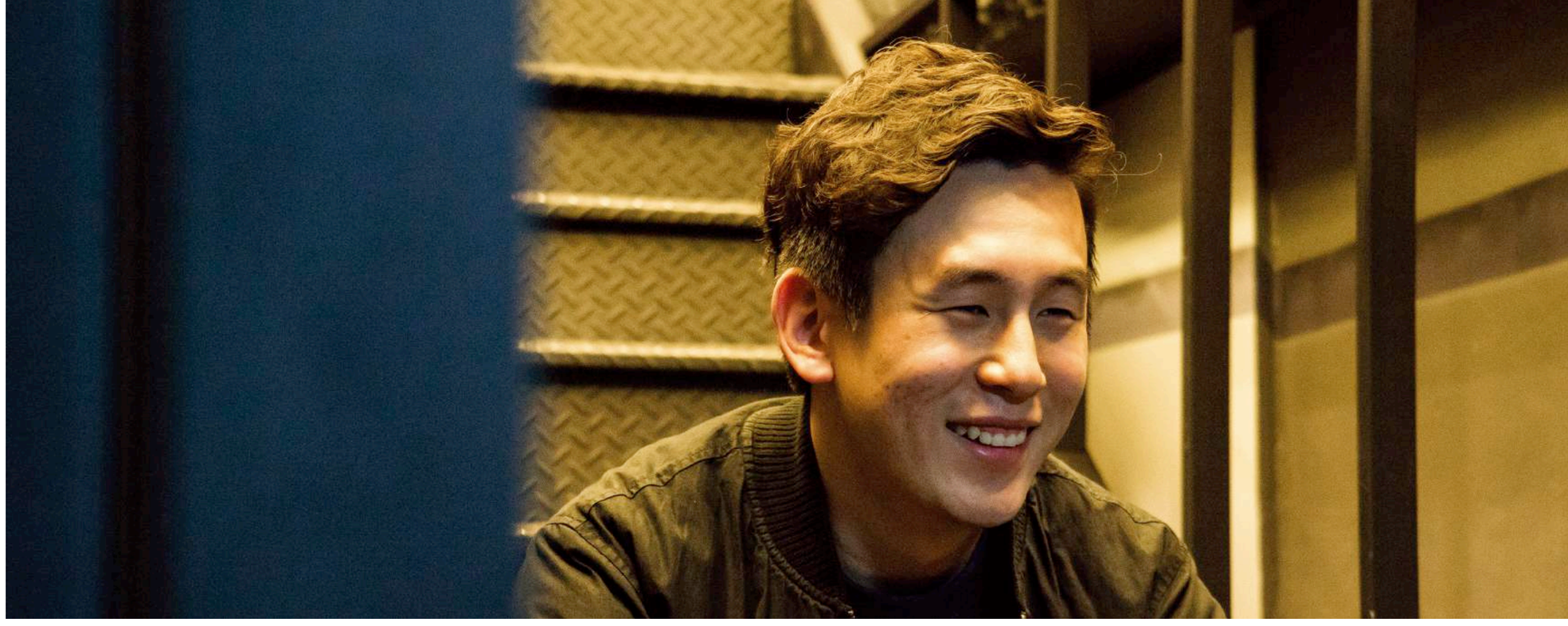
### 소셜 네트워크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은 소셜 섹터 내에 넓고 탄탄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교육을 함께 한 동기들과 멘토진, 루트임팩트 멤버 등 유사한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후배가 되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나간다. 이 관계는 섹터 관련 정보의 공유뿐 아니라 채용, 프로젝트, 창업의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 영향력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커리어 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 멘토링과 팀 워크를 통해 자신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셜 미션을 명료화 하여 진로 방향을 점검하는 분기점이 되어 준다. 학생들은 임팩트 베이스캠프를 통해 소셜 섹터 내 종사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체인지메이커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한다.

Supported by
J.P.Morgan



## 인터뷰

**김재원**
JUMP

JUMP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임팩트 베이스캠프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어떻게 임팩트 베이스캠프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점프라는 회사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루트임팩트에서 주관하는 임팩트 챌린저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연스럽게 임팩트 베이스캠프도 알게 되었죠. 이번 베이스캠프 교육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기대가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로지컬 띵킹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는 점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이론적인 개념들을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정작 실무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는 컨설팅 분야에 사용되는 기법을 배우고, 소위 말해 '한바퀴 돌려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간접 경험이지만 마리몬드라는 회사의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봤다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학교 과제를 할 때 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유독 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성장이나 사회적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즉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그런 시너지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임팩트 베이스캠프에 참여하기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힌트를 얻었어요. 여섯 명이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팀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가졌는 지 힌트를 얻으면서 구름이 걷어진 느낌입니다. 고민의 폭이 좁혀진거죠. 특히 1:1 멘토링을 받으면서 제 고민을 어떻게 좁혀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보다 큰 성과였죠.

**재원님께서는 프로그램 지원 당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베이스캠프가 도움이 되었나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관심사가 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긴거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실행하는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리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 같으면 문제를 발견해도 '누가 잘 해결하겠지'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긴거죠.

**프로젝트 임팩트베이스캠프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작은 회사에 다녀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한 팀으로서 활동해본다는 것이 실제 회사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간접 경험이 여타 인턴 경험과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미리 회사 경험을 쌓는 거죠. 특히 하는 일에 대한 멘토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요. 그런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실무에서 무엇이 효율적 혹은 비효율적인지 팀원들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정말 좋은 연습이 되었습니다.

# Impact Challengers

체인지메이커 인턴 프로그램

**#체인지메이커 걷기 #인턴**
**#소셜섹터 첫발**

## 사업 소개

임팩트 챌린저스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그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루트임팩트에서는 현대차정몽구 재단과 함께 소셜 섹터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 1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구직자 등)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챌린저스에서는 청년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다수의 소셜벤처를 섭외하여 전체 참여사의 채용 홍보 및 인력 채용을 동일한 시점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입된 지원자들은 여러 회사의 사업과 인재상을 접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한 회사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선발과정을 거쳐 임팩트 챌린저스에 참여하게 된 인턴들에게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 중 다양한 교육과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들은 개별 회사의 인턴십 대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여사들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해 조직의 인적 역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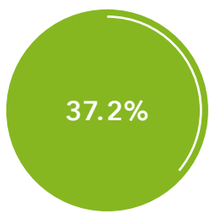
## Result

**프로그램 누적 성과** (2014년~2015년)

**참여인턴**
51명

**참여사**
22개사

**소셜 섹터 내 근무율**
(2016.02 기준)




**2015년 운영현황 및 성과**

**참여인턴**
38명

**참여사**
20개사

**정규직 전환 및 소셜 섹터 내 진출**
19명

*** 프로그램 진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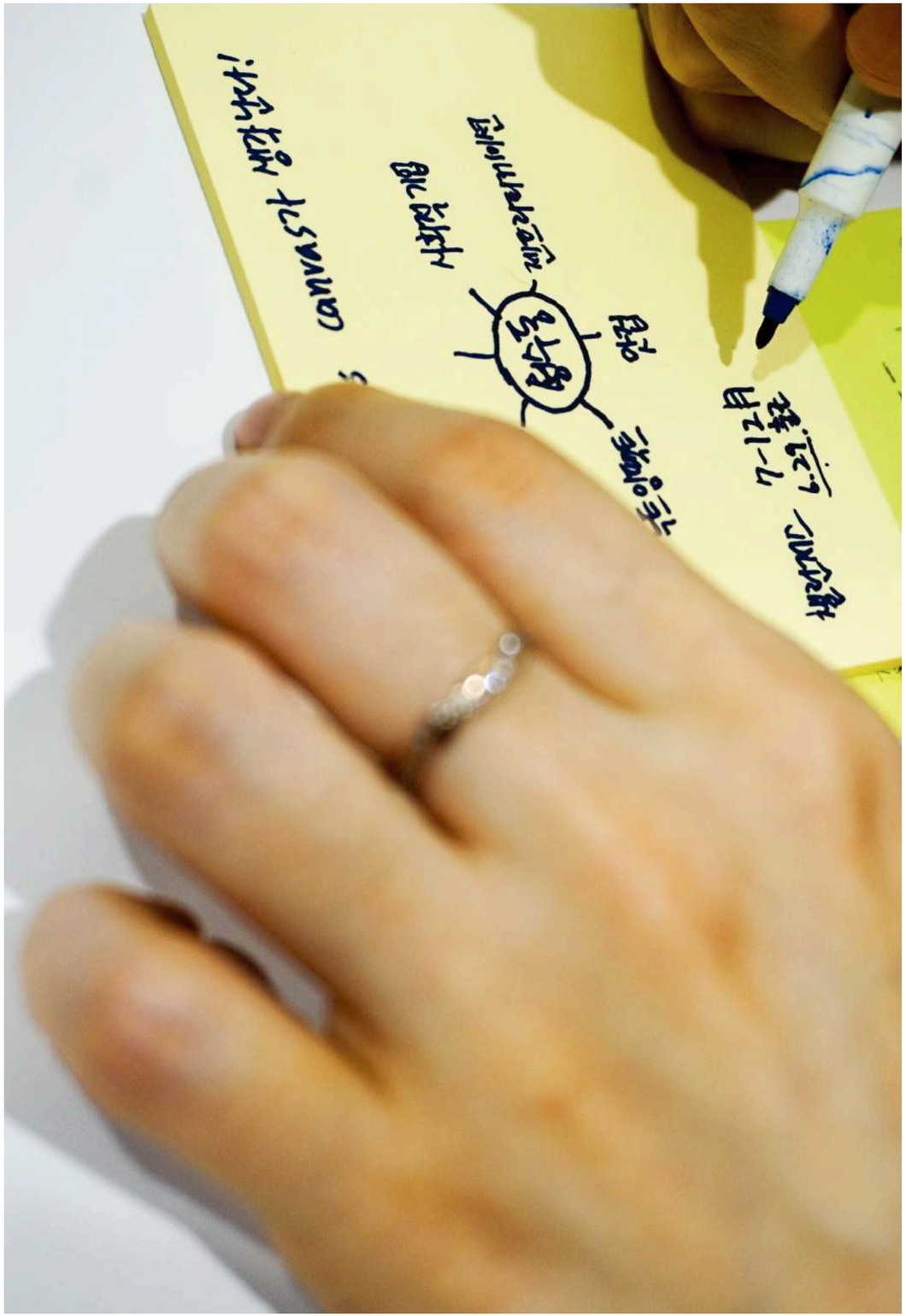
- 참여 소셜벤처 섭외
- 인턴 모집 및 채용 연결
- 인턴 대상 교육 진행

루트임팩트 — 현대차 정몽구 재단 (Chung Mong-Koo Foundation)

- 프로그램 공동 주최
- 참여사 정보 공유 및 추천

참여사

- 인턴 세부 업무 내용 계획
- 인턴 역량 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관리 및 지원



## 핵심 가치

### 현장

임팩트 챌린저스에서는 배우고 상상하는 것을 넘어 몸으로 부딪치며 느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검증하고, 향후 자신이 어떤 체인지메이커로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역량

임팩트 챌린저스를 통해 소셜 벤처에서 근무하는 인턴들은 소속 회사에서의 근무 외에도 오리엔테이션, 월별 정기모임 등의 교육과 자기계발 활동,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속 회사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과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 동기

소속된 회사 외 다른 소셜벤처에서 근무하는 신입 직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본 프로그램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임팩트 챌린저스 참여 인턴들은 사내에서는 대부분 함께 입사한 동기 없이 혼자 일을 시작하지만, 동 기수 다른 인턴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의지하게 된다. 또한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게 된다.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좀 더 소셜 미션을 지닌
인턴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된 교육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으며,
더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벤처 인턴이라는 특수한 일,
그다지 응원해주지 않는 일을 함에 있어서
든든한 동지들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LIVE

p.42
D-well
House

# D-well House

체인지메이커들의 셰어하우스

**#체인지메이커 같이 뛰기**
**#셰어하우스 #현대판 남자셋 여자셋**

## 사업 소개

디웰 하우스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는 커뮤니티 하우스이다.

현재 사회 혁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들은 심리적, 경제적 불안정과 체계적 역량 강화의 어려움, 사회적 자본 조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루트임팩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2030 체인지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커뮤니티의 기반을 제공하여 이들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디웰 하우스〉를 시작했다.

디웰 하우스는 20~30대의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형태의 주거 서비스로, 현재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1호점 (2014년 10월 오픈) 및 2호점 (2015년 11월 오픈)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노후 주택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서류 및 인터뷰를 통해 진정성 있는 청년 혁신가들을 모집하고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디웰 하우스에서의 주거 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료와의 교류, 신뢰에 기반한 상호 학습 및 협력의 기회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루트임팩트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디웰하우스 지점을 적극 확대하여 더 많은 체인지메이커들에게 위와 같은 커뮤니티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셰어하우스 외 다양한 형태의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확장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점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을 연결하는 지점 간 교류의 기회를 확장할 뿐 아니라 디웰 하우스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ALUMNI와 관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 Result

**입주민 구성** (2016.02 현재 기준)

**연령** 평균 29세 (20~39세)

**성별** 여자 **13명** | 남자 **12명**

**법인 형태** 영리 **16명** | 비영리 **9명**

**활동 분야** 농업, 인권, 국제개발, 환경, 교육 등

**직위/직책**
- Founder/CEO **14명**
- 소셜벤처/NPO 팀원 **9명**
- 창업 준비 **2명**

**규모**

**2개 지점 누적입주민**
34명

**1호점** 25명
- 입주민 16명
- ALUMNI 9명

**2호점** 9명
- 입주민 9명

**운영**

**월 평균 임대료** 35만원

**평균 보증금** 70만원

**재개약률** (1호점 기준)

83%

## 핵심 가치

### 사람

디웰 하우스의 제 1 가치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디웰 하우스에서는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건낼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입주민들은 디웰 하우스를 통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얻고, 사람을 통해 계속 나아갈 용기와 추진력을 얻어 보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성장

입주민들은 소셜 미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 상호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 디웰 하우스에서는 교육 과정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영감을 주고 받는다.

## 인터뷰

**박재성 박재형 김은정**(애나)
Dotween

도트윈은 점자 메시지를 새긴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여
시각장애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는 브랜드이다.

디웰 하우스의 입주민이자
도트윈의 공동창업자인 셋은
디웰 하우스로의 입주가
도트윈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재형** 저는 도트윈의 공동창업자로서 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 이슈를 노골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트윈을 창업했습니다. 도트윈은 점자를 장애인들만의 언어가 아닌 '재미있는 암호'처럼 활용하여 보통 사람들이 각자의 진심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 선물하는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구요.

**은정 (이하 애나)** 저는 원래 탈북자들을 구출, 정착 지원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NGO인 Liberty in North Korea (이하 LiNK) 에서 일하다가, 디웰 하우스에서 재형, 재성이를 만나 작년 3월, 도트윈에 합류했어요. 최근 2년 간 탈북민 이슈만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지만 이 둘과 만나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쉽지는 않았지만 고민 끝에 LiNK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도트윈에서 컨텐츠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나요?**

**재형**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애인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너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를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지 않았나, 재미있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었죠. 일단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성소수자, 탈북민 문제 등 차별과 편견에 관련된 이슈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애나** 말씀드렸듯, 원래는 탈북 인권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권 전반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디웰 하우스에서 같이 사는 식구들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사고의 폭과 시야를 더 넓혀야겠다고 느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마리를 풀어준 곳이 디웰이었던 셈입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디웰 식구들이 '열심히 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럼 디웰하우스에는 얼마나 사셨나요?**

**애나** 2014년 11월부터니까, 벌써 1년 반 가까이 살았네요.

**재형, 재성** 저희는 2인실에 같이 입주해서 2015년 2월부터 딱 1년 살았어요.

**디웰하우스를 어떻게 접하고 입주를 결정하시게 되었나요?**

**애나** 저는 LiNK에서 일하면서 박석길 부장님의 소개로 처음 디웰을 알고, 입주하게 되었어요. 원래 심리학, 뇌과학 분야의 석사 연구생으로 학교에만 있다가 NGO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아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LiNK가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자꾸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야만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처음 디웰 하우스를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하는 고민을 더 깊이 공유하고, 일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주를 결심했어요.

**재성** 기존에 하던 다른 일을 마무리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큰 기대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여기라면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진짜 실행해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을 지지해주는 곳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셰어하우스라는 것 자체에 매력을 느껴 입주를 결정했어요. 살아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많은 도움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디웰 하우스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애나** 전 이직을 경험했습니다. (하하) 처음에는 가볍게 조언을 주는 형태로만 도트윈과 함께 했었어요. 재형, 재성이의 활동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야겠다' 고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아마 3~4년 정도 후에는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말 꺼낸 지 4개월만에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을 더 빨리 실험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디웰과 함께한 2015년은 평생 잊지 못할 일년이 될 것 같아요.

**재형** 디웰에 처음 입주할 때는 재성이와 둘이서 도트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방어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디웰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공동창업자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애나 누나라던가… (하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 그저 잠깐씩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위층에 살고 있는 성용이형(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용 대표)과 함께 일한다거나, 고다누나(볼런컬처 고다연 대표) 일에 함께 한다던가… 주변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디웰 하우스의 좋은 점이에요. 단순한 리서치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구요. 디웰 하우스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수동 커뮤니티 효과도 많이 보고 있어요. 브래들리 타임피스 같은 경우, 같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팀이어서 늘 협업하고 싶었고,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클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성수동으로 이전하시면서 콜라보 제안을 주셨어요. 저희에게는 디웰 하우스가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끼리 있을 때보다 외부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애나** 인엑터스에 북한 음식을 소재로 레스토랑을 하려는 팀이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LiNK에 있어서 더욱 활발히 소통했었어요. 현재는 이미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도트윈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언을 나누고 있어요. 북한 문화 관련한 문제나 탈북민 정착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기 보다는 편견,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잖아요. 도트윈과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의 인식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접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엑터스 디렉터인 이고은 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자주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쉽게 생긴 것 같아요.

**재성** 아래층에 사는 재만이형이 베네핏에서 일하실 때 쏘잇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 주셨어요. 사회적 목적을 가진 팀들의 제품을 재미있는 화보로 담아내서 매거진 형태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함께 하는 팀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도 섭외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재만이 형이 저희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어느 날 제안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도트윈의 제품들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장을 줄이거나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들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디웰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 동물 보호를 주제로 일하는 팀들도 있으니까, 가죽 외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구요.

**디웰 하우스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재형**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친한 친구들도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구나 정도로만 인식하곤 해요. 그런데 디웰 식구들은 저희의 일이 목적을 기반으로 잘 정착되고 있는지,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열심히 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디웰 식구들이 '열심히 해, 잘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재성** 입주민 진환 님(프렌트립 조진환 이사)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서적 안정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도트윈이 가야할 사업적 방향성뿐만 아니라 창업자로서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제가 한때 휴식없이 일 할 때가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쳐 '자기 쉼'에 대한 방법과 중요성을 알려주시기도 했었구요. 고민이 비슷한 지점이 많고, 진환님의 고민들 또한 우리가 조만간 겪어야 할 고민처럼 느껴져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고, 디웰 에선 그 지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요.

**애나** 룸메이트(고다연 볼런컬처 대표)가 있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요. 지난 1년동안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초반에는 훨씬 더 친밀했었는데 요즘엔 서로의 페이스를 찾아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본인의 꿈,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도움이 되어요. 또 제가 고민을 이야기 할 때마다 편하게 침대에서 들어주고, '당연한 일이다'라며 해주는 조언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 WORK

p.52
Shared
Service

p.56
Ground

# Shared Service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공유 서비스

**#체인지메이커 마라톤**
**#법률자문서비스**

## 사업 소개

Shared Service는 소셜벤처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주 사업 외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소셜 벤처들이 전문 서비스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Shared Service는 전문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이들의 임팩트 확산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2015년 시작된 Shared Service 패키지의 첫 분야는 '법률 서비스' 이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프로보노 파트너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소셜벤처를 위한 법률 자문 워크샵 시리즈, 'LAW-큰롤'을 런칭하였다. 본 서비스는 소셜벤처 대표,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니즈를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LAW-큰롤'은 소셜벤처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섭외 하였다. 또한, 5팀 내외의 소규모 세션으로 기획하여 실제적인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온라인 자문 채널을 상시 오픈하여 기업 활동 도중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Shared Service는 법률 영역에 이어 회계, 노무, 세무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한다. 각 분야별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방식을 찾아, 소셜벤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키지를 구성할 예정이다. 각 분야 전문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셜벤처가 전문가와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

## Result

**온라인 법률자문**

**횟수**

총 19건, 8개사

(2016.02 현재 기준)

**오프라인 세션 'LAW-큰롤' 진행**

**진행 횟수**

총 5회

**참여인원**

12개사, 27명

(2016.02 현재 기준)

**만족도**

5.5/6 ★★★★★☆

Partner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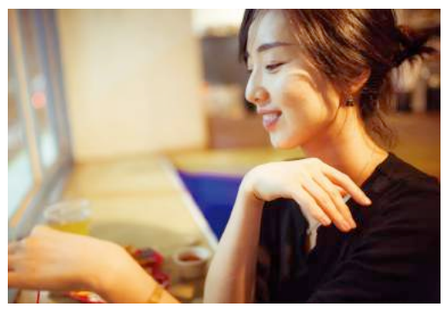
JIPYONG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두루

## 소인터뷰

### 참여벤처

**두손컴퍼니 박찬재 대표**
회사의 법률/세무 등 회사의 기틀을 잘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면서도, 막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각 전문분야를 따로 찾아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트임팩트의 법률 Shared Service, 'LAW-큰롤'은 저와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세션이었습니다. 주제별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내용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참여자 분들이 궁금한 점을 미리 취합하고 그에 맞게 강의를 진행해주시어 매 세션들이 매우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신 루트임팩트와 지평, 두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리몬드 박보혜 팀장**
저는 주로 콜라보레이션 및 웹툰 작가님들과의 계약서 검토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요즘 마리몬드 모조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소셜벤처에서 법무팀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되어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루트임팩트를 통하여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훨씬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모든 계약서를 서로 윈윈하며 잘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김용진 변호사**
루트임팩트와 MOU를 체결하고, 'LAW-큰롤'이라는 이름의 법률강의를 기획할 때부터 정경선 대표님, 허재형 사무국장님, 나종일 매니저님 등 루트임팩트의 구성원들의 열정 가득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AW-큰롤' 강의를 위해 성수동을 직접 찾았을 때에는, 소셜벤처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눈빛 역시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진심 어린 눈빛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더 진정성 있게 이 협력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성수동 소셜벤처들의 앞길에 놓인 법률적인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지평과 두루도 진심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태현 변호사**
루트임팩트의 활동을 들여다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좀 더 따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위해 일하시는 젊고 패기 넘치는 사회적 기업가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법률전문가로서 뜻 깊은 가치 실현의 기회를 루트임팩트를 통해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루트임팩트가 앞으로도 사회의 든든한 근간으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Ground

체인지메이커 코워킹 커뮤니티

#체인지메이커 마라톤
#Co-working community

## 사업 소개

그라운드는 500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체인지메이커들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 그라운드는 이들 체인지메이커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여 체인지메이커들의 DNA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한다.

그라운드는 2015년 3월 건축설계를 시작하여, 2017년 2분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다. 준공 시점에 고객을 찾는 일반적인 부동산 비즈니스와는 달리 그라운드는 건축 설계 전부터 적합한 구성원을 찾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구성원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업무 공간의 모습, 공간을 구성하는 커뮤니티의 정체성, 더 나아가 공간을 구성하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역할까지 건물에 입주할 구성원들의 토론으로 결정된다. 이를 '고객 주도형 그라운드 빌딩 프로세스'라고 부르며 이러한 과정이 '진짜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믿는다.

## 참여사

C Program
아쇼카 코리아
크레비스파트너스
JUMP
에코준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커뮤니케이션우디
베네핏
위즈돔
소녀방앗간





## 키워드

### 사명
Purpose

“ 그라운드는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의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열정과 전문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는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명감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 그라운드는 사명을 가진 체인지메이커들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교의 장이며, 아이디어, 경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라운드의 구성원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지며 각자의 미션 달성을 넘어 전반적인 사회혁신 무브먼트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 그라운드의 구성원은 본인이 창출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더 큰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교화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개방성
Open to all
Right People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기업, 기업의 특정 부서, 소규모 팀, 개인들은 누구나 그라운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영리 혹은 비영리 구분을 떠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라운드 구성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구성원이 하는 일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스타트업부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글, 연구성과, 혁신적인 디자인(UX, Universal Design 등),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일의 형태가 모두 임팩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커뮤니티
Community

“ 그라운드에서 양질의 업무 공간을 적정 가격에 제공받은 체인지메이커들은 각자의 미션과 사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이웃한 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게 된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집적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는 투자유치나 해외진출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소규모 기업이 독립적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회로 체인지메이커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실효 중에 하나이다.”

“ 그라운드의 구성원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소 그룹을 만들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소규모 커뮤니티는 구성원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 믿으며, 이는 그라운드라는 큰 단위의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 MAKERS

p.60
CEO

p.62
Board of
Directors

p.63
Change-
makers

# CEO

정경선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경선입니다.
2015년 한 해에도 루트임팩트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년을 희망차게 맞이했지만, 슬프게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침체에 만성적인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무력감과 불안감이 '헬조선', '흙수저' 등의 단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수행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이 아닐까 합니다. 체인지메이커들이 꾸준하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나가면, 언젠가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루트임팩트는 지난 2년여간의 시간 동안 체인지메이커들이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보다 잘 규명하고, 이해하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아이디어에 많은 분들께서 동의해주시고, 적극 지지해주신 덕분에 민간 최대의 사회 혁신 클러스터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의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믿습니다.

루트임팩트는 2016년 한 해 동안 성수동을 기반으로 체인지메이커, 그리고 체인지메이커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미 커뮤니티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이나 혁신 사례들도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렌디피티를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자원을 이끌어오며, 사회 혁신 생태계의 잠재적 리더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록 저희 사업의 대부분은 성수동이라는 작은 지역에 한정되겠지만, 그 안에서 루트임팩트가 돕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성공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고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은 루트임팩트에게 있어서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약에는 비단 저희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저희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만들어낼 임팩트의 잠재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Board of Directors

이사진 약력

**이사장 예종석** 한양대학교 교수
인디아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現 나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前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강철희** 연세대학교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現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現 공동모금회 이사
現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이사

**권혁일** 해피빈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제어계측공학 석사
前 네이버, 일본 네이버 CTO
前 NHN 사회공헌실 실장

**김운호**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분과실행위원
現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前 1999 서울NGO세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단장
前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애슈리지 경영대학원 MBA
現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 및 연구소장
現 헤르메스 에쿼티 오너십 서비스(HEOS) 한국 수석고문
現 (재)한국사회투자 이사

**엄윤미** C Program 대표
인시아드(INSEAD), MBA
前 이곤젠더(Egon Zehnder) 서울사무소, 부사장
前 맥킨지 서울사무소, Engagement Manager





# Changemakers

사무국

**정경선**
CEO

**허재형**
COO

**나종일**
FINANCE

**정다현**
COMMUNICATION

**최지훈**
WORK 팀

**강보라**
WORK 팀

**권용직**
INSPIRE 팀

**박연경**
INSPIRE 팀

**최병주**
LEARN 팀

**선종헌**
LEARN 팀

**허지용**
LIVE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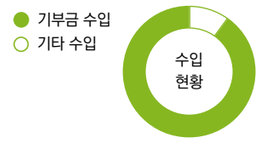
# Finance

2015 재정 요약

## 수입 현황

| 구분 | 금액 |
|---|---|
| 기부금 수입 | 1,217,432,500 |
| 기타 수입 | 148,407,492 |
| **수입 합계** | **1,365,839,9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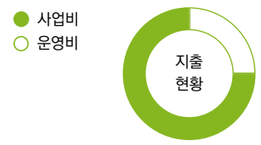
- 기타 수입은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합니다.




## 지출 현황

| 구분 | | 금액 |
|---|---|---|
| 사업비 | | 695,118,375 |
| 디웰 살롱 | 180,631,875 | |
| 임팩트 베이스캠프 | 119,460,892 | |
| 임팩트 챌린저스 | 145,752,492 | |
| 디웰 하우스 | 72,750,038 | |
| 그라운드 | 73,076,150 | |
| 기타 사업 | 78,161,448 | |
| 사업 관리비 | 25,285,480 | |
| 운영비 | | 238,088,963 |
| **지출 합계** | | **933,207,338** |

- 운영비는 인건비와 임차료, 조직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운영 성과표

**제 4(당)기**
2015.1.1~
2015.12.31

**제 3(전)기**
2014.1.1~
2014.12.31

| | 제 4(당)기 | | 제 3(전)기 | |
|---|---|---|---|---|
| **I. 사업 수익** | | **1,365,839,992** | | **973,546,913** |
| (1) 기부금 수입 | 1,217,432,500 | | 878,336,070 | |
| (2) 이자 수입 | 5,191,566 | | 2,744,806 | |
| (3) 사업 수입 | 91,176,377 | | 71,219,983 | |
| (4) 기타 수입 | 52,039,549 | | 21,246,054 | |
| **II. 사업 비용** | | **933,207,338** | | **930,426,051** |
| (1) 사업비 | 695,118,375 | | 750,140,258 | |
| (2) 일반 관리비 | 238,088,963 | | 180,285,793 | |
| **III. 사업 이익** | | **432,632,654** | | **43,120,862** |
| **IV.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 | | **432,632,654** | | **43,120,862** |



## 재무 상태표

**제 4(당)기**
2015.1.1~
2015.12.31

**제 3(전)기**
2014.1.1~
2014.12.31

| | 제 4(당)기 | | 제 3(전)기 | |
|---|---|---|---|---|
| **자산** | | | | |
| **I. 유동 자산** | | **766,235,284** | | **500,202,955** |
| (1) 당좌 자산 | | 766,235,284 | | 500,202,955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16,235,284 | | 450,202,955 | |
| 2. 단기금융상품 | 50,000,000 | | 50,000,000 | |
| **II. 비유동 자산** | | **417,750,424** | | **325,201,509** |
| (1) 투자자산 | | 242,464,761 | | 292,433,236 |
| 1. 장기대여금 | 150,031,525 | | 200,000,000 | |
| 2. 매도가능증권 | 92,433,236 | | 92,433,236 | |
| (2) 유형자산 | | 105,285,663 | | 12,768,273 |
| 1. 비품 | 106,965,212 | | 21,675,840 | |
| 감가상각누계액 | (1,679,549) | | (8,907,567) | |
| (3) 기타 비유동자산 | | 70,000,000 | | 20,000,000 |
| 1. 임차보증금 | 70,000,000 | | 20,000,000 | |
| **자산 총계** | | **1,183,985,708** | | **825,404,464** |
| **부채** | | | | |
| **I. 유동부채** | | **3,635,313** | | **19,941,723** |
| 1. 미지급금 | 428,754 | | 16,743,163 | |
| 2. 예수금 | 3,206,559 | | 3,198,560 | |
| **II. 비유동부채** | | **292,255,000** | | **350,000,000** |
| 1. 장기차입금 | 284,375,000 | | 350,000,000 | |
| 2. 임대보증금 | 7,880,000 | | 0 | |
| **부채 총계** | | **295,890,313** | | **369,941,723** |
| **순자산** | | | | |
| **I. 기본재산** | | **50,000,000** | | **50,000,000** |
| 1. 기본재산 | 50,000,000 | | 50,000,000 | |
| **II. 기금** | | **838,095,395** | | **405,462,741** |
| 1. 운영기금 | 838,095,395 | | 405,462,741 | |
| **순자산 총계** | | **888,095,395** | | **455,462,741** |
| **부채와 순자산 총계** | | **1,183,985,708** | | **825,404,464** |

**기획 및 편집**
루트임팩트

**디자인**
서소령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
루트임팩트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48 1층

**T** 070.4652.3788
**E** rootimpact@rootimpact.org
**H** rootimpact.org
**B** blog.naver.com/riblog
**F** facebook.com/RootImpact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프로젝트 자료 및 컨텐츠의 저작권은 루트임팩트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5 Rootimpact All rights reserved.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프로젝트 자료 및 컨텐츠의 저작권은
루트임팩트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5 Rootimpact
All rights reserved.